

대학교육의 새로운 도전에 기대한다

전국 대학 최초 고교식 학부모 회의...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제시 큰 만족

2010년 07월 05일 월 22:07:56

이상우

[경인일보=]학부모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어떤 학부모는 호기심에, 어떤 학부모는 재미있다는 표정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 경원대학교 소프트웨어설계경영학과 603호 강의실. 이 학과 김원(부총장) 교수를 비롯한 4명의 교수가 학과의 학부모들을 모셔 놓고, "학부모님들의 귀한 자녀를 맡아 한 학기를 이렇게 가르쳤고, 앞으로 이렇게 가르쳐 사회에 배출하겠다"고 학과 프리젠테이션을 겸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자리다. 대학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학부모를 모두 초청해 고교식의 학부모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 이상우
(경원학원재단
상임이사)

이 대학 이길여 총장의 '진짜배기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MIT 뛰어넘기' 교육방식을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MIT 대 출신의 김원 교수로, 지난해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에서 이 총장이 직접 스카우트해 온 세계 소프트웨어 학계의 대가. 세계적인 논문 173편에다 국내 교수 가운데 논문 피인용 지수 1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석학이다. "교수님의 화려한 경력은 알겠는데,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진짜배기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것인가", 학부모들의 눈빛은 의문을 놓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면서 잘 훈련된 몸이라 한마디만 들어보아도 거짓인지, 진짜인지 금방 안다.

학과장인 김 교수는 "학생이 원하면 우리 학생의 상위 50%는 미국 대학 3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대학원에 모두 진학시키겠다"고 이야기한다. 스탠퍼드, MIT를 비롯 잘 나가는 대학원에, 그것도 장학금을 받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삼성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에 모두를 입사시키겠다고 장담한다. 학부모들은 더욱 의아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본다. 파워 포인트를 열어 차근차근 설명한다. "보통은 3·4학년에 전공과목을 몰아 가르치는데, 저희 학과는 1, 2학년부턴 과학적으로 선정된 커리큘럼에 따라 모두를 영어로 수업한다"고 말한다. "1학년이라 일반과목 강의는 한국어로 가르치지만, 교과서, 강의자료, 숙제, 과제, 쪽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모두 영어로 한다." 학생들이 힘들어 하지만, "미국에 유학 왔다고 생각하라며 가르친다. 2학년부턴 강의 시간에 말도 30%는 영어로, 3학년부턴은 60%로 늘릴 계획"이란다.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1초라도 늦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하위 10%는 평상시에도 학과 교수들이 모두를 '무보수 과외공부'를 시킨다"고 했다. "그래도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는 방학에 모두를 모아 학과에서 공짜 '과외 캠프'를 연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나머지 50% 학생도 모두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 갈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김 교수는 "한 학기 수업을 결산한 결과, 우리 학생들이 국내 최상위 수준의 학생들과 비교해 하나도 손색없는 수학적능력을 보였다"고 자랑한다. 학부모들이 비로소 의문을 떨치며 환하게 웃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미국 일류 대학원에, 또 일류 기업에 갈 수 없다며 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학부모들과 교수가 학생들에 관해 허심탄회한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등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양 쌓기도 이야기했다. 훌륭한 인재의 기본 조건인 '건전한 비판정신 기르기'를 독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선정한 교양서적 읽기다. 연간 10권씩 졸업 때까지 최소 4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봉사활동은 기본이다. 학생 모두가 '거동불편 노인 목욕시켜주기'로 선정했다. 목욕차는 예고 없이 간담회장에 나타난 총장이 사준다고 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학부모들은 깊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간담회 후, 학부모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늦도록 대화를 이었다. '진짜배기 경쟁력 있는 인재 키우기' 선포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들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순간이다. 교수들의 몸과 마음을 바친, 세계 최고의 인재 만들기! 그 새로운 도전에 기대한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